

‘선두’ 전북, 우승 향해 한걸음 더

20일 김천 상무와 K리그1 30라운드 경기

김제 ‘파트너 데이’ 진행… 홍보부스 운영

이승기, 전북현대 팬에 은퇴 인사 예정

K리그1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 모터스FC가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와 K리그1 3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다.

전북현대대는 이날 승리할 경우 승점 69점을 확보하며 2위권 팀과의 격차를 더욱 벌일 수 있어 챔피언 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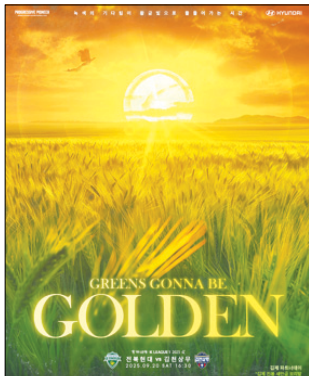
전북현대대는 지난 8월 포항전 패배 이후 코리아컵을 포함해 3연승을 이어

가며 우승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8승 2무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홈 경기 승률 80%를 자랑한다.

이날 경기는 김제 ‘파트너 데이’로 진행돼 김제시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팬들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김제지평선축제’와 함께 김제지평선쌀, 쌀 마스크팩, 지평선축제 체험권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전북현대의 팬들에게는 특별한 방문객도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

년간 전북현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이승기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팬들에게 은퇴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승기는 전북현대 소속으로 K리그 201경기, ACL 45경기, 코리아컵 9경기 등 총 255경기에 출전하며 42득점 46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2014, 2017~2021년 K리그 6회 우승과 리그 5연패의 주역으로 팀 전성기를 이끌었다.

한편, 이날 경기 시작 전에는 2025시즌 K리그1 2차(14~26라운드) ‘플러스트아디움상’과 ‘팬 프렌들리 클럽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8월 ‘이달의 골’을 수상한 이영재 선수에게 트로피 전달식도 열린다.

/김재훈 기자

손흥민, MLS 첫 해트트릭… LAFC 완승 이끌다

〈로스앤젤레스FC〉

솔트레이크시티 원정경기

전반 3분 만에 선제골

전반 16분 · 후반 37분

추가 득점 팀 승리 견인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공격수 손흥민(33)이 미국 무대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LAFC는 18일 오전 10시30분(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4-1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13승8무7패(승점 47)가 된 LAFC는 한 계단 상승한 리그 4위에 자리했다.

10승4무15패(승점 34)가 된 솔트레이크는 10위를 이어갔다.

손흥민은 이날 4-3-3 포메이션에서 두 번째 ‘3’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데니스 부앙가, 티모시 킬만과 함께 공격진을 구축했다.

9월 A매치 미국전(2-0 승)에서 1골도움을 한 손흥민은 교체로 출격한 멕시코전(2-2 무)에선 동점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리그 일정을 재개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전(4-2 승)에서는 경기 시작 53초 만에 골 맛을 봤다.

상승세를 살려, 이날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전반 3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킬만의 도움을 받은 손흥민은 패스 속도를 살려 상대 박스로 돌진했다. 그리고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켰다.

공식전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손흥민은 MLS 진출 후 첫 멀티골까지 달성했다.

전반 16분 라이언 힐링스헤드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두 팀의 간격을 두 골 차로 벌렸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경기를 리드하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공격수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사진=LAFC SNS 캡처)

LAFC는 후반 11분 실점 위기를 맞았다.

박스 안 경합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내줬다. 다행히 키퍼로 나선 호완 세코가 골대를 맞추는 실수를 범했다.

위기를 넘긴 LAFC는 추가골 기회를 잡았다. 후반 12분 손흥민이 상대 박스 앞쪽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골대를 때렸다.

솔트레이크는 계속되는 압박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31분 자비에르 고조가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한 골을 추격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MLS 진출 후 첫 해트트릭으로 추격 의지를 제압했다.

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부앙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다시 2골 차를 만들었다.

손흥민의 질주 및 마무리, 부앙가와 호환 등이 빛난 장면이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41분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교체되면서 경기를 일찍 마쳤다.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에는 부앙가가 직접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43분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와의 단축 찬스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승리에 해기를 박았다.

솔트레이크는 빅터 올리툰지가 후반 48분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맞았다.

/뉴시스

미트윌란 조규성 ‘득점포’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그라운드를 떠났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조규성(27·미트윌란)이 1년 4개월 만에 골 맛을 봤다.

덴마크 프로축구 수페르리가 미트윌란은 18일(한국 시간) 덴마크 올보르의 포를랜드 파크에서 열린 올보르BK와의 2025~2026시즌 덴마크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조규성은 이날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3분 프란콜리누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추가골을 위한 승부수였다.

조규성을 앞세운 미트윌란은 후반 18분 발데마르 안드레이센의 추가골까지 더해 2-0으로 앞섰다.

그리고 후반 34분 에드워드 칠루피아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오른발 슈팅으로 3-0을 만들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조규성의 득점이었다. /뉴시스

익산시 키운 꿈, 프로야구 무대서

김유빈,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KT 위즈’ 지명

익산시 리틀야구단 출신… 박승호에 이어 두번째

익산시 리틀야구단 출신 김유빈 선수가 프로야구 무대에 입성했다. 지역에서 키운 야구 꿈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김유빈 선수(전주고, 포수)는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6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T 위즈의 지명을 받았다.

김유빈 선수는 익산시 리틀야구단 제9기 수료 후 전라중학교를 거쳐 현재 전주고에 재학 중이다. 특히 2024년 전주고 재학 시절 전국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주전 포수와 1루수로 활약해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 지명은 익산시 리틀야구단 출신으로는 2024년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박승호 선수에 이어 두 번째 프로 진출 사례다. 특히 익산이 KT 위즈 2군 연고지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가 연고 구단 유니폼을 입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

김수완 익산시 리틀야구단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훈련



한 결실”이라며 “프로 무대에서도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 리틀야구단에서 배출된 선수가 프로 무대에 진출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꿈나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야구 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일구회, 은퇴선수 대상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

프로야구 OB모임 사단법인 일구회가 은퇴 선수를 향한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구회는 18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악성 댓글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혐악 선수들뿐만 아니라 은퇴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은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일부 악성 댓글은 선수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뉴시스

김제시 체육공원 축구장, KFA 1등급 인증 업그레이드 재개장

김제시(시장 정성주) 체육공원 축구장이 대한축구협회(KFA) 1등급 인증을 받은 축구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재개장했다.

18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체육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시기에 맞춰 6월 공사를 착공, 8월 말 완료했으며, 지난 10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그라운드 등급 KFA 1등급(유효기간 2년)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KFA 제품인증제도는 인조잔디 시공 후 인증을 신청하면 협회가 국제 축구연맹(FIFA) 공인을 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인증검사를 의뢰해 1~3등급으로 구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조잔디 교체의 핵심은 ‘충격 흡수패드’ 설치에 있다.

기존 구장은 기초바닥 공사 후 바로 잔디를 부착하는 방식이었으나, 시는 부상 위험을 줄이고 경기력과 사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충격흡수패드를 도입, 시민들이 천연잔디 구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용감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타 인조잔디 대비 선수들의 발목 피로도 감소, 슬라이딩 안정성, 볼 바운드 정확성, 볼 컨트롤 안정성이 향상되어, 재개장 이후 사용한 동호인들은 처음 경험하는 최상의 축구장 컨디션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체육공원 축구장

ERUM ART SPACE

문화공간이름 국제교류 기획공연

“지역을 넘어 세계로, 전주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아트 퍼포먼스”

ERUM Global Stage Series

Performing Arts Beyond Borders

문화공간이름, 국제예술기획의 시작을 알리다
전통과 현대,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무대!

TENGGER

문화공간이름 기획, 한일합작 사운드 아트 프로젝트
한국·일본 사운드 아트 유닛 TENGGER
“영계를 허무는 감각, 사운드로 완성된 새로운 지평”
25. 9. 23 Tue. 7:30pm

Cheo Bong

리우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통예술 전문단체 ‘체오봉’ 내한 공연
“말 없이 전하는 이야기, 리우스의 마음이 울려옵니다”
리우스 전통 마릴국 예술단
25. 9. 24 Wed. 7:30pm

2025.9.23~9.24 7:30PM

문화공간이름

주최: 주한 리우스 대사관 | 기획: 이윤정 | 후원: 리우스 문화재단, 김제시문화재단, 전주시문화재단 | 후원: 전직 20,000원 | 예매방법: “이름공간이름” 앱에서 | 문의: 063-223-5323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름”